

우린 연 이자 7%... “테크핀, 한판 붙자”

신한금융 SC제일 상상인저축 등 네이퍼통장·T이득통장 등에 맞서 연 7~8.3%대 적금상품 출시 러시



저금리 기초 속 한껏 달아오른 테크핀 열풍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사들이 고금리 상품으로 반격에 나섰다. 신한금융의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왼쪽)과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뱅 777 정기적금'.



저금리 기초 속 고금리로 무장한 테크핀 상품이 주목받자 위기감을 느낀 금융사들이 잇따라 고금리 혜택을 내놓으며 반격에 나섰다.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인 '테크핀(Tech-Fin)'은 금융사가 IT를 접목하는 핀테크와 달리 정보통신(IT)업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퍼와 미래에셋대우가 협업한 최대 연 6% 이자를 제공하는 '네이퍼통장', SK텔레콤과 핀크, KDB산업은행이 손잡고 내놓은 최대 연 2% 금리 혜택의 'T이득통장' 등이 대표 상품이다.

반격의 선두주자는 신한금융으로 계열사 간 제휴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다.

기본 금리 1.2%에 적금 자동이체 연결 및 최근 3개월 간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각 0.3%포인트씩 우대금리를 더해 1.8%를 제공한다. 여기에 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입, 신한체크카드 신규 및 이용, 신한금융투자 최초 신규거래,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가입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6.5%의 리워드를 마이신한포인트 또는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모바일뱅킹 '뱅뱅뱅' 출시를 기념해 연 7.0%의 금리를 제공하는 '뱅뱅뱅 777 정기적금'을 선보였

다. 12개월 만기 상품으로 월 납입금은 최대 20만 원이다. 7월 한달 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777명 선착순 가입 가능하다.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한 고금리 상품 출시도 계속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신한카드와 손잡고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 적금을 내놓았다. 기본금리 2.1%에 신한카드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3.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SC제일은행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

4000명에게 삼성카드와 손잡고 연 최대 7.0% 혜택을 주는 '부자되는 적금세트'를 판매한다. 기본 금리 1.6%에 연 5.4%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 혜택은 삼성카드 신규 또는 6개월 간 미이용 고객이 SC제일은행 제휴 삼성카드를 발급하고 1년 간 매달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된다. 조형기 SC제일은행 디지털·퍼스널뱅킹사업부 상무보는 "높은 캐시백과 함께 SC제일은행 제휴 삼성카드의 혜택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날씨와 생활

30일(화)

서울	80/20	인천	80/20	수원	80/20
19 23	☀️	19 23	☀️	20 24	☀️
춘천	80/60	강릉	80/80	청주	80/60
20 24	☁️	19 22	☁️	20 23	☁️
대전	80/60	전주	70/60	광주	70/30
21 23	☁️	21 22	☁️	21 23	☀️
대구	80/60	울산	70/30	부산	70/30
22 26	☁️	22 26	☀️	21 26	☀️
창원	70/30	제주	7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1 27	☀️	22 25	☀️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5:14 해질 19:57 🌙 달뜨기 14:38 달지기 01:25

산 날씨

북한산	☀️	18/23	내장산	☁️	20/23
설악산	☁️	18/20	무등산	☁️	21/23
오대산	☀️	20/24	주왕산	☁️	19/25
속리산	☀️	21/22	지리산	☁️	22/26
계룡산	☀️	21/23	한라산	☀️	21/26

바다 날씨

인천송도	☀️	19/23	안면도 꽃지	☀️	19/22
제주도	☀️	19/23	변산반도	☀️	21/23
경포대	☁️	19/22	거문도	☁️	20/24
속초	☁️	18/21	해운대	☁️	21/26
대전	☁️	20/23	제주도	☀️	22/25

미세먼지

서울	21	좋음	대전	22	좋음
부산	25	좋음	경기	22	좋음
대구	40	보통	강원	20	좋음
인천	20	좋음	전북	34	보통
광주	27	좋음	제주	23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361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충선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은
 경제산업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하나은행·수출입은행, 글로벌 금융협력



하나은행과 한 국수출입은행 이 글로벌 금융협력의 위한 업무협약(사 진)을 체결했다. 신홍시장 개척을 위한 전대금융 활성화, 국내 수출 입 기업과 무역금융 협업 강화,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 대외거래 금융지원 협업 확대 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 해외 인프라·선박 부문의 금융협력을 포함해 신재생·디지털 인프라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글로벌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 은행장은 "국내 수출입 기업의 신홍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중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금융 '위니콘 동행세일' 개최

우리금융이 7월 12일까지 위비마켓에서 '위니콘 동행세일'(사진)을 개최한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성장기업을 지원

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위니콘은 우리를 뜻하는 '위(W)'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위니콘(Unicon)'의 합성어다. 위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이 투자 및 지원 중인 혁신성장기업을 말한다. 친환경 소재, 유통구조 혁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혁신성장기업이 참여해 간편 조리식 밀키트, 육류 및 수산물, 생활 용품 등을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해외여행 아쉬움, ‘한국 속 외국 마을’서 달래요”

남해 독일마을·가평 뷔띠프랑스 등 이국적 풍경과 음식·당일치기 적격

올해는 어려워진 해외여행 대신 여름휴가로 국내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국적 여행기업 스카이스캐너는 국내에서 해외여행의 기분을 낼 수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독특한 테마 지역 3곳을 추천했다. 국내지만 건물은 물론이고, 동네 풍경, 음식 등이 마치 해당 국가의 정서를 잘 보여주어 못하는 해외여행의 아쉬움을 달래는 당일치기 방문지가 좋다.

남해의 독일마을은 1960년대 독일에서 일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하고 국내에 돌아와 터전을 잡은 곳이다. 현재 독일에서 40~50년 살았던 교포와 독일인

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통 독일식으로 만든 소시지와 맥주를 맛볼 수 있고, 독일 전통의상 체험, 독일의 대표적 인 축제 '옥토퍼페스트'(10월) 개최, 독일 식 집과 정원을 볼 수 있다. 투어코스인 도 이처플라처는 화사한 건물과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인증샷 명소다.

서울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인 인천에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의 명물인 짜장면과 탕수육, 포춘꾸키, 화덕 만두, 홍두 병 등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중국 음식들을 본토 맛으로 느낄 수 있다.

가평 뷔띠프랑스는 이름 그대로 한국에서 만나는 '작은 프랑스'다. 파스텔 톤 건물에 유럽 소도시의 광장과 계단 등 거리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19세기 프랑



가평의 '뷔띠프랑스'. 국내에서 이국적인 프랑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사진제공 | 스카이스캐너

스 가옥을 그대로 가져와 다시 지은 '프랑스 전통주택 전시관', 프랑스 버러시장 분위기를 재현한 '골동품 전시관', 유럽 인형 300여 점을 전시한 '유럽 인형의 집',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생애와 유품을 볼 수 있는 '생텍쥐페리 기념관' 등이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30일(화) 음력: 5월 1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진눈깨비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여우비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먹구름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쾌청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생각대로 실행하라. 좋은 결과가 온다. 무리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결실의 탑을 쌓는 형상이다. 단,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내일 행하라. 내일은 길한 날이다.오늘은 용의 날로서 천살에 해당한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 오늘은 월살 또는 고초살이라 해서 싸앗이 받아야 되지 않는 날이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피로율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날이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오늘은 반인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유를 가지고 물러서서 소연하게 실속을 차린다는 뜻도 된다.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종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물은 흘러야 하는데 오늘은 흐르던 물이 잠시 간헐한 형상이다. 겉보기엔 외롭지 않아 보이나 사실은 외롭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비바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무지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노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맑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해·번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싸늘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에 얽매고 통틀을 맞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날 격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제가 따르니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이룬다. 오늘은 반인일이다. 반인은 말안정을 뜻한다. 진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난에 불참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한 야기 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오늘은 화개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요, 예술이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지만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손을 안 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 새로운 것에 대한 향수가 생겨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하라.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오늘은 월살과 화개살이 부딪히는 날이다. 관재, 송사 조심해야한다. 또한 비밀노출이고 싸움으로도 해석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오늘은 원진살과 귀문관살을 만났다.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인을 원망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